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보성군, 해수욕차센터 준공 박차



보성군은 해수와 녹차를 이용해 힐링과 휴양이 가능한 해수욕차센터 준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8년도 국비 45억원이 확정되

어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수욕차센터는 총사업비 170억

국내 최고 힐링과 휴양의 랜드마크 역할 기대 내년도 국비 45억원 확정...내년 5월 완공 예정

원을 투입해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지상3층 연면적 4,420㎡으로 현재 운영중인 해수욕차탕의 2배 이상 규모로 건축되고 있다.

▲1층은 뷰테라피, 특산물판매장 ▲2층은 50명 동시 수용이 가능한 규모의 남·녀 해수욕차탕 ▲3층은 해수와 녹차를 이용한 이쿠이토닉, 아의 노천탕, Bar 등이 조성된다. 세신 복욕문화에서 탈피 건강과 자유기능을 갖춘 차별화된 공간배치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인프라 및 유희종합휴양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기 위해 지난해부터 관립업체와 협의 중으로 현재 예비인증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시설물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축물 3층의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외벽공사와 내부 전기, 통신, 소방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대비 100%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적기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품질 좋고 맛있는 '구례 감' 맛보세요~

구례5일시장 감 직거래 장터 입소문 방문객 급증



구매할 수 있으며, 또한 감 값 하락 및 관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농가에는 조금이나마 시름을 덜 줄 좋은 기회가 되고

구례5일시장에 펼쳐진 울긋불긋 감 직거래 장터가 입소문을 타고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른 새벽부터 장을 준비하는 농민들의 얼굴에는 피곤함도 잠시, 손님 맛을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고, 넓게 펼쳐진 감 구경에 방문객도 신이 난 모습이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구례 감' 직거래장터는 감 출하시기에 맞추어 23일부터 열렸으며, 80여 명의 감 농가들이 정성스레 수확한 감을 방문객이 직접 맛보고

있다. '구례 감' 직거래장터는 오는 11월 3일, 8일, 13일 세 번 더 열린다. 한편, 구례 감은 지리산과 섬진강의 천혜 자연환경과 낮과 밤의 큰 일교차로 착색이 좋고, 당도가 매우 높으며, 토질이 비옥하여 과육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감 분야 탑푸르트(Top Fruit) 대상을 받는 등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신안군 팔금면, 제21회 '노인의 날' 행사 성료

건강과 노년 행복한 삶 기원

지난 27일 신안군 팔금면에서는 군 14개 읍·면 노인의 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며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정심) 주관으로 제 2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가 팔금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오찬, 마일벨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더불어 행복한 향유의 고장 팔금을 지켜오신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경료효친사상을 고취하고자 개최되었으며 지역 내 어르신 및 주민 500여명이 함께 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고길호 신안군수를 비롯한 도·군의원 등 내빈들도 참석해 이날 행사를 축하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였다. 이준행 노인회장은 기념사에서 즐거운 노후를 살기 위해 이웃과 소통하는 삶을 강조하며 노년의 건강유지에 힘쓰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당당한 노인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이날 모범노인상은 김재희(80세), 노인복지 기여자는 오미순(61세)씨가 수상하였으며, 모범단체장은 서근경로당(회장 김봉오)가 차지했다.

신안=박응식 기자

영광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폐수·대기·가축분뇨 등

영광군은 11월1일부터 11월3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공무원과 민간인 4인 1조로 총 3개 반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폐수, 대기, 가축분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의 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와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지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며,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시설·방지시설에 대한 전문가 진단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

율적인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기술지원 대상업체로 우선 추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민간인에게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와 지도·점검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오염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장성 명품쌀' 고유 브랜드로 러시아 수출

꾸준한 품질관리 통해 '365생' 브랜드로 수출



장성 쌀이 고유 브랜드를 달고 러시아로 수출된다.

장성군은 지난 25일 진원면에 있는 '장성군 통합 RFC'에서 유무석 장성군수와 농협 관계자, 쌀전업농회 회원, 수출단지 관계자, 농업인단체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 명품쌀 러시아 수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출하된 쌀은 총 18톤은 NH농협무역을 통해 내달 중 부산항에서 선적돼 러시아 사할린 코르시코프 항구에 도착해 사할린 우즈베키스탄 쌀시장, 마트 등에 풀리게 된다.

장성군은 3년 전부터 계약재배를 통해 쌀을 수출해 왔다.

장성군은 수출 첫 해인 2015년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육성한 고급 신품종 '조명1호'를 도입했다. 또 수출단지는 안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GAP 인증을 획득한 후 26톤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2016년엔 장성 쌀 최초로 미국과 러시아에 약 40톤의 쌀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다. 올해 수출은 장성고유의 프리미엄 농산물 브랜드인 '365생'을 달고 추진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모은다.

지역 농가는 수출 3년차인 올해 '365생' 브랜드를 달고 장성 쌀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장성의 고품질 쌀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이번 쌀 수출이 밀식 삼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생산단지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고품질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고 ▲쌀을 매입하는 장성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유통체널 다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무역에 관여하는 NH농협무역을 수출 대행을 통해 수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성=반정모 기자

고흥군-경기도 광주 청소년 문화교류

2박 3일 일정 나로우주과학관·목재체험관·소록도 탐방 등

고흥군은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경기도 광주시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고흥군-경기도 광주 간 청소년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다.

고흥군과 경기도 광주시간 우호협력증진과 상생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4년 자매 결연을 맺은 이래 청소년 분야 교류협력강화를 위해 계획된 이번 행사는 2박 3일 일정으로 환영식과 친교의 시간, 나로우주과학관, 목재체험관, 소록도 탐방 등 양 도시 청소년 참여기구 교류활동을 했다.

이번 청소년 문화교류에 참여한 한 학생은 "고흥군과 경기도 광주시를 대표한 청소년들이 모인 만큼,

양 도시의 청소년활동 공유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매년 지속될 청소년 문화교류를 통해 양 도시 청소년 간 우정을 오래도록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청소년분야 교류 활성화와 함께 양 도시 간 우호가 더욱더 굳건하게 정착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지원을 통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에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